

◇ 만성 염증성 폐질환의 전폐적출술 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최필조, 방정희, 전희재, 이용훈, 우중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특별한 위험 인자의 존재 여부는 만성 염증성 폐질환을 위한 전폐적출술의 술후 이환율과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술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의 유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7년 6개월 간 본 교실에서 만성 염증성 폐질환으로 전폐적출술을 시행 받은 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후 합병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술전위험인자로서 원인질환이 결핵성 폐질환의 여부, 당뇨병의 합병 여부, 폐기능검사상 FEV1의 수치에 따라, 또한 결핵성인 경우 술전 객담 양성 및 다재약재내성의 여부에 따라 분석하였고, 술중 요인으로 수술 부위, 늑막외폐절제술, 완전 전폐적출술[completion pneumonectomy], 술중 출혈량, 기관지 단단면의 병소잔존 여부, 기관지 단단면의 보강 여부, 술중 조작중 병소 부위의 파열로 인한 늑막강의 오염 여부에 따라 알아 보았다. 전체 술후 합병증에 대한 상기 위험인자의 유의성에 대해, 또한 술후 합병증 중 기관지 늑막루와 농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각각의 유의성을 단변량 분석을 통해 평가 하였다.

결과 : 수술 사망은 없었으며 술후 합병증은 기관지-늑막루 5례, 농흉 2례, 출혈로 인한 재수술 6례, 급성호흡부전 1례, 급성신부전 1례 등이었다. 전체 술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로서 우측 전폐적출술[p=0.0029], 수술시 병소부위의 파열로 인한 늑막강의 오염[p=0.004], 흉막외전폐적출술[p=0.019]의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기관지 늑막루와 농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서 우측 전폐적출술[p=0.0007], 수술시 병소부위의 파열로 인한 늑막강의 오염[p=0.003], 흉막외전폐적출술[p=0.015]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 전폐적출술후 술후 합병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우측 전폐적출술과 흉막외전폐적출술의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술중 조작을 요하며 특히 늑막유착의 박리 조작시 폐병소 부위의 파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임저자: 최필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발표자: 최필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